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태복음21:1-11>

*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심장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에도 보면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들어 갈 수 있는 문고리가 없는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셔 들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요한복음1:12) 여러분 믿음이란 구원자이시오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왕으로 모셔 들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은혜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이 쓰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예배의 시간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은 세상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종려나무를 흔들고 겔옷을 깔며 예수를 맞이하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저자 마다 관점이 다른데 마태는 유일하게 600년전의 스가랴의 예언(스가랴9:9)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처음 말씀은 평안하나 물으시고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며 마음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면 탐심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저갱이며 권세이면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미움으로 가득할 것이며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면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인해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꾼 소굴이 되어있는 모습에 화를 내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12-17)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십니다(18-22)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입성하시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노와 더러운 것을 정리되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유추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버린다는 것 보다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다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과학이 종교를 비난하고 무시했으나 지금은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데 양자물리학의 관찰자효과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사물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11:1)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상이 된다는 것을 과학의 관찰자 효과를 통해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면 실상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이 불신의 마음을 넣어주어 기도는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는 완전한 믿음이 없기에 응답이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어 어두움을 밀어내고 참 빛을 주셔서 예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주가 쓰시는 인생은

①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자리에 잘 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의 고정관념으로 남자아이가 살육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을 잘함이 중요함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 할 때 시용하실 수 있도록 매어 있을 자리에 잘 매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보잘 것 없는 나

귀가 600년전 예정하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잘 매어져 있었기에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힘들어도 참고 힘든 그 곳에 잘 매어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유란 100% 해방이 아니라 50% 해방과 50% 묶여있음이 합칠 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② 진정한 주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용하실 나귀가 있던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았던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소외된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곳인데 나귀를 풀어 드린 것은 내 것이 쓰임 받음이 감격하여 나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시기에 내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권의식을 가진 베다니 사람들의 온전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③ 풀어 주님께 끌고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보혈의 강물이 흘러 모든 것을 내 놓을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끌고 와라>에 즉시 순종하여 풀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묶었던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은 나의 주권자요 왕 되시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시간 일 것입니다. 매어 있던 나귀를 풀어 쓰임 받게 하는 베다니의 헌신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백향목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쓰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남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고난주간을 승리하시어 온전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